

“대한 독립 만세” 남가주 3.1절 기념식 열려

미주 3.1여성 동지회 주관,
남가주 한인단체 공동주최

3.1절 102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가 지난 1일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거행됐다. 기념식은 미주 3.1여성 동지회(회장 그레이스 송)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앞장선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겼다. 1부 감사예배는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JAMA 전 대표 강순영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국자였다”(느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미주 3.1여성 동지회 주관한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기독일보

고문, 김순희 회장(대한민국 역사 지키기 운동본부)이 기념사를 전했고, 최학량 목사(미주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장), 최만규 회장(남가주 육군동지회장)이 축사했다. 한기형 목사는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에게 3.1절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신앙과 인권, 자유를 되찾고자 힘썼다”며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신앙적 토대를 일으켜 세우고, 특히 북한의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해 힘쓰자”고 전했다.

한 목사는 또 “한민족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 이전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교회가 연합되고, 민족이 하나돼야 한다”며 “3.1정신을 계승해 우리 민족의 연합과 단결, 교계의 일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행사는 3.1절 노래 합창과 만세삼창으로 마쳤으며, 43명의 3.1절 글짓기대회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김동욱 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내 모임을 갖지 못하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반가워했으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앞장선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겼다. 1부 감사예배는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JAMA 전 대표 강순영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국자였다”(느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 강순영 목사는 대한민국의 건국 기초를 놓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했다. 강순영 목사는 “1961년 북한은 남한 보다 3배나 부유했지만 오늘날은 남한이 북한보다 54배나 부유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 무역구

모 세계 6위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하신 결과이며, 한국을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전했다. 강 목사는 “3.1절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잃

어버려서는 안 된다”며 “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자유시장경제와 기독교 가치관을 수호하고 선교 대국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2부 기념행사는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그레이스 송 회장이 3.1운동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병만 회장, 한기형 목사(세기모 미서부지부

‘성적지향 차별금지’ 평등법, 미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25일 평등법(Equality Act)을 찬성 224명, 반대 20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처음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이 법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그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이미 24일

이 법안을 상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이 여성 스포츠와 종교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CNN은 전했다. 개인이 그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화장실이나, 라커룸, 탈의실 출입에 있어 거부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이 법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남성과 사적 공간을 공유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자들은 우려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앤디 빅스(Andy Biggs)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평등법이 “인류를 파괴하는 공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빅스 의원은 24일 “그것(평등법)은 종교와 표현, 결사의 자유 등 수정헌법 제1조에 있는 모든 중요한 권리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부정한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의결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지지표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562-741-8465
 admin.kor@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2021년 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온라인수업제공/유학생 1-20 발급 입학생 전원 장학혜택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 모집 학위과정 및 지원자격

학위과정	지원자격
MATS (신학 석사) M.Div (목회학 석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D.Min (목회학 박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졸업자 교육부 인가 M.Div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 장학금
 2021년 봄학기 전 입학자(25%) 장학금 혜택
 목회자(30%) 선교사(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 (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1년 2월 15일(월) ~ 3월 5일(금)
합격자 발표	2021년 3월 12일(금)

■ 입학 전형료 및 수업료

학위과정	입학 전형료	학점당 수업료
MATS (82학점)	USD 50	USD 250
M.Div (126학점)	USD 50	USD 250
D.Min (55학점)	USD 100	USD 350

■ 봄학기 일정 (10주)
 2021년 4월 5일 ~ 6월 11일

■ 입학문의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562-741-8465 / admin.kor@itsla.edu

말씀 소그룹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 열린다

오는 6월 18일(금)부터 6월 26일(토)까지 온라인으로

2월 23일(화)부터 등록 시작, 마감은 5월 10일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 소그룹” 사역인 커피브레이크에서 제13회 국제 컨퍼런스(13th Coffee Break Small Group Conference)의 등록이 2월 23일부터 시작 된다.

컨퍼런스는 “소망을 따르는 기쁨”(Joy in Hope)란 주제로 6월 18일(금)부터 6월 26일(토)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말씀 소그룹에 대한 열정과 커피브레이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컨퍼런스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중심으로 9일 동안 12번의 전체모임, 7개의 선택강좌가 진행된다. 또한 성경 읽기와 묵상하는 방법을 포함해 소그룹 인도의 실제적인 방법과 소그룹 모임 참여 등 커피브레이크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전도를 목적으로 시작된 커피브레이크는 북미주개혁교회(CRC)에 속한 사역이지만, 하나

제13회 커피브레이크 온라인 컨퍼런스
JUNE, 2021 18(금)~26(토)
■ 일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제본문 데살로니가전서

조기등록 3/31(수)까지 PDT 기준 등록마감 5/10(월)

전체강좌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 데살로니가 배경연구
- 한눈에 보는 구약
- 한눈에 보는 신약
- 성경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 시와 말씀 묵상
- 커피브레이크와 목회현장
- 커피브레이크로 세워가는 선교적 제자도
- 선교현장의 목소리
- 믿음의 명분하전
- 소그룹 태도
- 커피브레이크 DNA
- 주를 본받아

선택강좌
- 말리지 의 허락되는 기쁨
- 인도적 양육과 분기
- 중립적 질문
- 말할 기도
- 새가족을 위한 질문만들기
- 소그룹 인도자로서의 부르심
- 커피브레이크 전도 O&A

소그룹
등록이 마감될 후 모든 등록자들은 소그룹에 배정되고 각 소그룹 인도자로부터 초대됩니다.

인도자 워크숍 I & II
컨퍼런스 등록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이 따로 준비됩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CoffeeBreakKorea.org

자양육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미주 한인 사역은 1995년부터 컨퍼런스를 시작하여 2021년에 13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햇수로 26년이 된다.

계순정 컨퍼런스 준비위원장은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미주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남미 등 예전보다 더 다양한 지역에서 약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인원이 시간대가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의 특성을 살려 선택이 다양한 일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홈페이지(www.coffee-breakkorea.org)를 참조할 수 있다. 조기등록은 3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마감은 5월 10일까지이다.

문의) 준비위원장 계순정 949-415-4236, 부위원장 박원디 714-356-9227, 총무 정혜란 cblove3000@gmail.com 951-444-0150

님과 말씀과 사람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 미주뿐 아니라 현재 세계 55개 교단에서 전도와 제

김동욱 기자

“아시아 혐오, 증오범죄 이렇게 신고하세요”

에스터 림 씨, 증오범죄 12가지 대처 방안 설명한 책자 발간

최근 LA 코리아타운 내 아시아 혐오 증오 범죄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에스터 림 씨는 32페이지에 달하는 “증오범죄 신고 방법”(How to Report a Hate Crime)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증오범죄 설명 및 신고 이유, 예방요령, 공격 당할 때 해야 할 일, 보고요령, 도움 요청 시 영어로 알리기 등 12 가지 경우에 따라 행동해야 할 내용들이 한글과 영어로 자세히 담겼다.

에스터 림 씨는 친구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총 7천300달러의 제작비로 책자 4,300 권과 호루라기 3,000 개를 마련해 LA 코리아타운과 파사데나, 몬트레이파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식당 등에 배포하고 있다.

림 씨는 “외할머니가 생전에 두 차례나 거리에서 넘어졌지만 영어를 못해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정문섭 시니어센터 이사장이 에스터 림 씨로부터 증오범죄 신고 방법 책자와 호루라기를 기증받고 있다.

하는 바람으로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림 씨는 지난달 26일에는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이사장 정문섭)를 방문해 한국어 100권, 중국어와 일본어 각 10권씩 모두 120권의 증오범죄 신고 방법 책자와 비상용 호루라기 100 개를 기증했다.

정문섭 이사장은 “최근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한인이 인종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증오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한 때”라며 “기증받은 책자와 호루라기는 시니어센터 회원들에게 골고루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예방 전문가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수강생 전원에게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까지 총 10일 동안 이어질 40시간의 교육 과정은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진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엠 소장은 “본 교육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과 한인 이민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213-235-4864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비상 시국에도 예배 필수” 캘리포니아주서 새 법안 발의돼

“종교인들을 이등국민 취급해선 안 돼”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라이언 존스(Brian Jones) 상원의원이 대유행과 같은 비상 사태 동안에도 종교 예배를 ‘필수(essential)’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기독교일보 영문판이 18일 보도했다.

“종교는 필수 행위(Religion Is Essential Act)”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정부 법령 “8571, 8627, 8627, 8627.5, 8634조 및 8655조를 수정, 제7장에 18.5조를 추가하여, 비상 지휘권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법규의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비상사태 동안 종교 예배를 계속 허용할 것과 “종교 예배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보건, 안전 또는 점용 요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종교단체가 ‘정부의 과

도한 접근(government overreach)’을 당할 경우에 행정 또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California Family Council), 캐피톨리소스연구소(Capitol Resource Institute), 주데오-크리스천코커스(Judeo-Christian Caucus)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존스 의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뉴섬 주지사와 미국 전역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교회, 모스크, 사당, 유대교 회당, 사원 등을 불법으로 폐쇄했다”며 “미국인들은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고 자신이 선택한 예배당에서 동료 회원들과 함께 모일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뉴섬 캘리포니아주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예배 전경.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페이스북

사는 11개월 동안 코로나라는 구실을 이용해 이러한 권리를 침해했고, 그의 동료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그들의 손바닥에 앉은 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비롭게도, 최근

들어 미국 대법원이 우리의 종교권을 되돌려 줬지만, 다시 그 권리를 훼손하겠다는 뉴섬과 다른 이들의 위협은 여전히 보인다”고 후속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했다.

아울러 그는 “한 사람이 종교를

실천하는 것은 전염병 중에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가는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등국민(second class citizens)’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캘리포니아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실내에서 찬송 등 노래는 제한하되 시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이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3명은 반대했다.

로버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굴과 같은 성당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최대 인원을 0명으로 제한한 주 정부의 현재 명령은 전문 지식이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이해 관계에 대한 감사나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코로나19 펜데믹이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자세

미주장신대 박동식 교수 신간 “코로나 일상 속 신앙, 교회, 삶” 출간



미주장신대 박동식 조직신학 교수가 신간 “코로나 일상 속 신앙, 교회, 삶”을 출간했다.

저자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영성, 삶과 죽음, 생태, 만남, 고향과 가족, 열정, 리더, 신앙, 희망, 교회 등을 주제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엮었다.

박동식 교수는 코로나19 시대를 단순히 질병이 휩쓰는 시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왔던 길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철학적, 정신적, 미래 세계의 다양한 거대 담론이 급격히 등장할 시대로 진단한다.

그는 2020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시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반목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개개인의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인간을 단순히 한 집합체의 구성원이 아닌 함께 아파하고 더불어 희망을 꿈꿔야 하는 개별적 존재로 생각하

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책에서 “홀로 선 자발적 고독자와 공동체는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며 “공동체의 거대 담론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되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해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방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인간은 사라져도 자연은 그대로 있지만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도 사라질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고독의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자고 권면한다.

추천사를 쓴 전 미주 장신대 총장 서정운 박사는 “사람들의 말이, 목사들의 책은 설교집이거나 그의 전공 분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다르다”며 “신학

과 철학, 문학적 요소들이 적당하게 비비진 따뜻한 밥 같습니다. 잔혹한 시기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위안과 용기를 주는 귀한 책”이라고 평했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성도도 교회도 당황하고 있다”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진정한 신앙일 겁니다. 코로나19를 건너는 기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박동식 교수는 LA 미주장신대대학 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인문학 디렉터 및 평신도대학 디렉터로 섬겼다. 김동욱 기자



박동식 교수 (미주장신대 신학대학 교 조직신학)

“홀로 되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어바인에 소재한 베델교회(담임 김한호 목사)는 오는 3월 5일(금)부터 1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이혼 가정 회복 세미나인 비온더 더 블루(Beyond the Blue, 이하 B+B)를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한다.

B+B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홀로서기 훈련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배우는 영적 발달의 치유회복 프로그램이다.

B+B는 13주 동안 영상과 대화를 통한 회복모임을 갖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며 친목

을 도모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담당하는 이란혜 전도사는 “이번 봄학기의 대상은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위기에 놓인 가정”이라며 “홀로됨의 상처로 인해 용기를 잃고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임을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참가 등록은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20달러다. 문의: (949)735-8472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선교회), 김준목사(주필리미주교회), 신정민목사(복음선교회), 유관희목사(종교포럼), 김인식목사(KCC공동교회)

박상원 목사의 편지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과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미주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6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멕시코에서 꾸는 세계 선교비전”

필자가 멕시코 선교를 결심했을 때 여러 선교사들과 상의를 하였다. 몇 분은 선교사로 가기에 나이가 많지 않은가, 언어 습득이 만만치 않을텐데 하는 우려 섞인 반대를 하였다. 섬기는 선교단체의 대표는 못 같 이유 백가지보다 가야 할 이유 한 가지만 붙잡아라, 멕시코의 청년 지도자들을 세계 선교에 주인공이 되게 하라는 조언을 주었다. 필자는 멕시코를 통한 세계선교를 꿈꾸면서 선교사의 길을 정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임을 확신한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의 사역은 60명 청년 신학생들과 스텝들 그리고 3 가정의 동역 선교사들과 서로 합숙하며 새벽기도부터 저녁예배까지 온종일 함께 한다. 가끔씩 다과를 두 손 가득히 사 가지고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는 동문 목회자들의 방문도 기쁘고, 또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도서실용 스페인어 신학도서를 몇 박스씩 가지고 방문할 때도 기쁨 중반이다.

주일엔 오후 찬양예배 후 저녁 식사를 마친 후부터 자유시간이다. 지난 주일 저녁 무렵 6명의 남학생들이 불쑥 우리 집을 찾았다. 선교사님 댁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다 했다. 그들을 환영했고 우리 부부는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잠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학교생활 이야기, 장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 등.

한 학생이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장면에 대해 궁금해했다. 한 사진은 필자가 2013년에 터키 가지엔템에서 전도를 했던 청년이 2017년도 안디옥에서 열렸던 시리아 난민 교회 지도자 수양회에 참여하여 반갑게 만났던 장면이고, 또 다른 사진은 필자가 이집트 선교지에서 콕티교회 지도자들과 만났던 장면 등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한 후 돌아가며 장래 계획을 말하는데 호세라는 학생이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했다. 어느 나라를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이슬람 나라에 가고 싶다 말했다. 그럼 이 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

도하라 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품으라고 했다. 그리고 터키에서 필자가 만난 움베르토 선교사 이야기를 해주었다.

터키 안에는 약 7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외국 선교사들이 살고 있다. 그중 절반 정도의 선교사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터키 외국인 선교사 협의회를 구성했다. 움베르토 목사가 회장을 맡아 섬기고 있다. 흑해지역이 사역지인데 현지인들 교회를 목회하면서 선교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가 멕시코에서 파송받은 멕시코인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때 그 학생의 눈동자가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깨달은 것 같아요.”

매년 1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그중 5명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를 바란다. 내가 경험한 우리 학생들은 열정적이다. 비전이 있다. 재능이 많다. 부지런하다. 그리고 멕시코 개신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멕시코 현지 교회들에게 선교적 교회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간구의 기도와 경청의 기도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한 경청의 기도를 깊이 해야 한다고. 우리 신학교에서 반드시 세계선교의 리더십들이 배출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 자신의 진로와 가정, 그리고 고향과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열방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멕시코 청년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⑦ “실루기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행13:4). 이는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마가 요한의 선교팀이 도보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이동하였고,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첫 선교여행지 구브로 섬을 향해 배를 타고 출발한 곳이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도적으로 조성된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이 실루기아를 세운 이유는 지중해 연안 강대국들과의 교역을 위한 해양도시 건설이었습니다. 무역과 국방을 위한 일종의 복합 도시였습니다. 해양 무역을 통해 국부를 꾀함은 물론이요, 군부대를 주둔시킴으로 국가방어를 위한 요새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류쿠스 니카르토1세는 새 항구도시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 실루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이름인 셀류쿠스의 형용사 형태로서, ‘셀류쿠스에게 속한 것’ 또는 ‘셀류쿠스의 것’이란 의미입니다.

실루기아는 수리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셀류쿠스 1세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도시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따라 실루기아라 명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실루기아는 B.C. 301년 4월 오르테스(Orontes) 강 하류 피에리아(Pieria)산록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종 실루기아 피에리아(Seleucia Pieria)라고 부릅니다.

실루기아는 사도 바울 당시에 대단한 해양 도시였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수송과 보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망실되었지만, 안디옥과 실루기아 사이에는 발달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실루기아는 교통의 요충지인 안디옥과 연결하면서 내륙의 교통망과 해양을 잇는 매우 중요한 항구도시였습니다.

현재 터키 안디옥(안타키아)의 서쪽에 있는 ‘사만다오’ 항구가 실

루기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어 많은 피서객이 찾는, 제법 북적거리는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옛 실루기아 항구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유물은 안디옥과 실루기아를 연결했던 도로, 아크로폴리스 신전, 투기장, 둘레 12km 성벽에 쌓인 성문, 등이 있습니다. 바위를 뚫어 건설한 안디옥과 실루기아를 연결한 고대 도로는 바울 선교팀이 이용했던 도로입니다. 유물 중 가장 진기한 것은 길이 1.3km의 대암석 수구인데, 이것은 급류의 범람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한 배수 시설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피에리아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났습니다. 빈번한 홍수는 실루기아의 숙제였습니다. 거의 매년 홍수로 도시가 마비되고 항구의 기능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정부의 치리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실은 실루기아에 오론테스 강변과 항구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티토(Titus)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흐름을 바꾸고자 바위산을 깎아 만든 방수로(放水路)입니다. 도시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 거대한 암벽을 파서 터널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티토 터널은 실루기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로마 베스파시아누스(Titus Flavius Vespasianus)황제가 공사를 시작하고 아들 티토(Titus)황제가 완공한 터널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는 티토 부자는 예루살렘성을 함락시키며 체포한 유대인 노예를 동원해 이 터널을 건설했다고 기록합니다. 티토는 장군시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며 유대인의 저항에 부딪혀 고통을 했습니다. 티토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경험한 유대인들의 공사 실력을 믿기도 했고,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감도 있어서 어렵고 힘든 티토 터널 공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주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NPO로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론과 목회성공에의 재인식(2)



Pentecost mosaic Image by Holger Schué ©Pixabay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쏘시개가 되어서 교회가 활활 불꽃처럼 힘차게 되살아나기를 소망한다.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인 성숙을 간절히 기도하며, 진심으로 염원한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에 교회는 충만한 사랑을 체험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 그 모습대로 수천 명이 모이 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 속에서 흠여지기도 하였지만,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갔다.

말씀으로부터 죄인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감동, 이는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말씀의 수사학에 불과하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말씀이 증거되며,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며, 감사와 찬양과 성도들 사이의 유무상통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심정이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만족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국교회가 체험했던 평양 장대

현교회의 회개 기도와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운집하던 것만이 부흥이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가 홀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우리는 말씀의 부흥, 기도 생활의 감격, 경건의 성장,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선교하여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모두 다 부흥이라고 말할 것이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고, 엄청난 숫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부흥이다. 하지만 이런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이 남아있다. 부흥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만, 사람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가 너무나 다르다.

영국 신학자 이안 머레이는 『부흥과 부흥주의』에서 오늘날의 복음적인 교회들이 이해하는 부흥은 세 가지 견해와 입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견해는 부흥이라는 것을 평

소에 진행하는 갱신 혹은 지속적인 변화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 어떤 특별한 날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특정한 현상이 부흥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화란 개혁교회가 취하는 입장이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령의 사역』에서 주장한 견해이다. 신약 시대는 이미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으므로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부흥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은 이미 오셨고,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once for all) 역사하고 있는 해석이다.

두 번째 견해는 부흥을 일시적이며, 특별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부흥을 특별한 사건적인 관점으로 보는 입장인데, 여기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두 가지 흐름들이 있다.

그 첫째는 부흥은 사람의 순종에 대한 조건적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 1792-1875)의 영향으로 인해서 확산된 부흥운동이 바로 이러한 전형이다. 사람이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특별한 초자연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두 번째 흐름은 회개와 개인적인 거룩함을 갱신하는 노력을 하면, 부흥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1950년대에 요나단 고포트와 던컨 캠벨이 주장했는데, 근거로 삼는 성경이 역대하 7장 14절이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고칠지라”는 말씀이다. 두 번째 견해는 알미니안주의에 근거한 부흥주의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들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순종을 다짐하게 되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흥의 상급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견해는 부흥을 성령의 주관적인 부으심으로 이해하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들과는 죄인들의 구원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가장 전통적인 부흥에 대한 인식이며, 존 오웬, 요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패커, 이안 머레이 등이 취한 입장이다. 앞에 언급한 첫 번째 부흥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세 번째 견해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사도행전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일상적인 체행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심령에 부여되는 은혜로만 회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 번째 해석에서는 부흥이라는 체험과 현상이 일상적인 신앙생활과 동일한 종류이지만, 그 정도와 깊이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부흥은 성령

의 부으심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의 회심이 일어나고, 일상의 신앙생활 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성숙이 깊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깊은 확신이 주어지고, 보다 강렬한 체험을 갖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압도당하게 된다. 1907년 한국 대부흥 운동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필자도 이 세 번째 견해의 부흥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교회부흥과 목회 성공은 세상적인 평가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세상에서의 권세, 많은 재물과 물질적인 풍요로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명예와 인기, 육체적으로 즐기는 쾌락과 오락에서 과히 멀리 떨어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전혀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매달려 살아간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것들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음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곳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눈으로 보고 바라는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만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롬 8:6) 인간의 본질과 삶의 진실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말씀을 제시하여 어두운 마음에 빛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부자든지, 권력자든지, 저명한 사람이든지, 깊은 공허와 미래에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구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악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요셉처럼 형통케 하심을 얻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美 남침례회 총회장 “교단 내 인종차별, 코로나19보다 더 심각”

미국 남침례회 총회장인 J. D. 그리어 목사는 “교회 지도자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을 열정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교회 안에서는 유색 인종보다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며 비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3일 보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 내 (특정) 인종의 지배에서 조직적 인종 차별이 비롯되었다고 보며, 이는 미국인의 의식에 내재되었다는 주장이다. 비판적 인종 이론가들은 이로 인해 인종 집단들 간에 현저히 다른 법적·경제적 결과가 있어 왔다고 주장한다. 또 제도적 인종 차별은 미국 흑인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지난 22일 열린 남침례회 집행위원회 모임에서 ‘위기 속에서 선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그리어 목사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교단이 코로나19보다 깊고, 더 서서히 더 만연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중국의 우한이 아닌 우리의 마음 속 침체에서 온 위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리어 목사는 “작년 우리가 사랑했던 교단의 약함, 즉 분열과 실패, 그리고 육신을 좇는 우상숭배가 드러났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위기를 단지 폭로했을 뿐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비판적 인종 이론

은 중요한 논의이고,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이론에 대한 강력한 신학적 논의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성경적 정의만큼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신중할 태도로 성경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유색인종보다 인종 차별주의자들과 신연방주의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확실하게 말해서 우리 중 대부분의 교회들은 슬퍼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그러한 남침례회 소속 교인들에게서 이메일과 전화 연락을 받았다”면서 “우리 교단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비난하려는 열정만큼 인종차별 및 인종차별이 우리나라에 남긴 고통스러운 유산을 슬퍼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어 목사의 이러한 발언은 교단 내에서 최근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치적·신학적 의견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비판적 인종 이론 논쟁으로 일부 유명한 흑인교회들은 남침례회와 절연하기도 했다.

그리어 목사는 “남침례회는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이루기 위한 최고



J. D. 그리어 목사. ©Courtesy Marc Ira Hook

의 수단이며, 교단의 교리가 수정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교단 내 다양성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배제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협력하던 주된 이유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심에 정치적 행동주의 집단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화국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변화는, 굳이 말하자면 문화적 변화였다. 복음의 문화가 없는 복음의 교리와 선교는 무의하고, 약하며, 성경에 의하면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총회장직을 처음 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께서 내 마음에 담아두신 의문은 ‘우리가 정말 복음주의자인가?’이다.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선교에 대한 것이 아니다. 교리와 선교에 있어서는 분명히 복음적이다. 그러나 이를 따르는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주의자인가?”라고 했다.

약 2년 전, 남침례회 총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그리어 목사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인종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마치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지

적했다.

그리어 목사는 “예수님을 거역했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어떤 누구, 어떤 집단보다 올바른 교리를 지녀 왔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말씀이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성경의 정확한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인간의 전통과 율법의 명령을 혼동하게 했다. 그들은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언행일치를 요구했고,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그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지혜가 없거나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 전통과 지혜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무시한 채, 율법의 세부 사항에만 초점에 맞췄다고 말씀하셨다.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1980년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은 자유주의자들의 폐단을 거부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쉽게 희생시킬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폐단을 거부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성경 읽기, 코로나19로 지친 성도에게 희망”



©Pixabay

영국성서협회(Bible Society)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때 성경 읽기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크리스천리서치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성경 읽기를 통해 위기 당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45~54세의 연령대의 경우, 이 같은 답변은 절반 가까이(49%)

증가했다. 28%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63%는 성경을 읽으면 확신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 23%는 정신적인 행복이 커졌다고 답했으며, 24~34세의 경우 이 같은 답변이 47%로 증가했다. 16~24세의 1/3은 성경을 읽는 것이 외로움을 덜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응답자 중 23%는 성경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25~34세

의 경우 이 같은 답변은 53%로 크게 증가했다.

조사 결과,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이전보다 더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고, 25%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읽고 있다고 했다.

25~34세 중 27%와 35~44세 중 32%가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경을 읽는다고 했다. 응답자의 59%는 이제 성경 관련 영상을 더 많이 보거나 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성경협회 온라인 바이블 강좌의 저자인 앤드루 올러턴 박사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것을 보면 고무적”이라고 했다.

올러턴 박사는 “성경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기준점으로서 능력을 갖고 있다. 마치 바다에서 빠졌다가 바위에 서는 것과 같다. 정신적 건강은 매우 중요하고 성경은 인내와 행복의 원천”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C&MA, 故 라비 재커라이어스 목사 안수 취소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가 최근 故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의 성추행 사실이 독립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안수를 취소했다고 크리스천 헤드라인즈(Christian Headlines)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MA 교단은 라비 재커라이어스 국제사역센터(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ies, RZIM)의 조사 결과와 관련, 46년간 공인된 전도사로 C&MA에 몸담았던 자카리아스가 성적 비행을 펼친 것에 대해 “대단한 슬픔을 표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C&MA 교단은 “재커라이어스의 행동은 그의 헌신, 성격, 생활 방식, 가치관을 통해 그리스도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의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이러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진 고통스러운 결과를 인정하여 故(故) 라비 재커라이어스를 우리 교단 내 인가된 부처에서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라비 재커라이어스 박사. ©패션 콘퍼런스 제공

또 교단은 “그의 안수도 이와 함께 자동 취소된다”면서 “앞으로 교단은 새로운 목회자 자격과 관련한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커라이어스는 1974년 C&MA에서 안수를 받았다. C&MA는 RZIM과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고인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강혜진 기자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도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휼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www.marhlaw.com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 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인 것입니다. 한분 한분의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美 연합감리회 총회 2022년으로 한 차례 더 연기



지난 2019년 2월 14일 미주리주에서 열렸던 특별회의. ©미연합감리교

미국 연합감리회(UMC)가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던 총회를 2022년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25일 보도했다.

당초 연합감리회 총회는 2020년 5월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으로 연기했다.

교단의 총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총회가 오는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총회를 2번째로 연기한 이유는 2021년 내로 많은 나라에 백신이 보급되지 않을 수 있고, 봉쇄로 인해 여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2021년 총회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고려도 있었으나, 기술 연구팀은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합감리회 주교 위원회는 종이 투표용지 사용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오는 5월 8일 온라인 특별회의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장인 신시아 피에로 하비(Cynthia Fierro Harvey) 주교는 성명에서 “종이 투표란 하는 것은 전 지역의 총대들이 모두

참석했을 때 가능하다”면서 “선출된 모든 총대들의 참석은 무시되거나 희생해서는 안 되는 공정함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집되는 세션은 종이 투표용지로 우편을 보내는 것에 대한 허락을 얻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했다.

작년 5월 말, 위원회는 2021년 총회를 2021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로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회 참석 가능 인원이 250여 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약 900명의 총대들이 미네소타에 모여야 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위원회는 연기된 입법회의 의사진행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비 주교는 당시 교단지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준비와 훈련으로 사실상 총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날마다 지역, 언어, 시간대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 연합감리회는 다음 총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교수, 동성 커플의 축도 금지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강해진 기자

美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63% “바이든 승리 합법적이지 않아”



기도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유튜브 영상 캡처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미국 기업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가운데 3분의 2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당하게 선출됐다고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2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AEI 아메리칸 라이프(American Life) 조사 센터가 지난 1월 실시된 ‘미국인의 관점조사’(American Perspectives Survey)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에는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출신 성인 2천16명과 인터뷰가 포함됐다. 이 설문 조사는 선거 후 미국인의 정치적 견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월 11일 발표됐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응답자의 63%가 “그의 승리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답했다.

AEI 센터 대변인에 따르면 공화당원으로 확인된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합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5%로 나타났다고 한다.

CP에 따르면 AEI 대변인은 조사 대상 중 백인 복음주의자 총합은 343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으로 확인된 백인 복음주의자 응답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전 AEI 공공종교연구소 연구 책임자인

다니엘 A.폭스는 이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남겼다.

그는 “2021년 1월 실시된 ‘미국인의 관점조사’는 미국인들이 2020년 대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승리의 정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미국인들이 분열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큐어는(QAnon)을 포함한 정치 음모 이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상당수 미국인이 정치적 실패에 직면해 폭력 사용을 용납한다”라고 지적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중 66%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가 합법적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무소속 응답자의 24%와 민주당 응답자의 2%만이 같은 대답을 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도 이 설문조사 데이터에 주목했다고 CP는 전했다. 이 매체는 “새로운 설문 조사에 따르면 5명 중 3명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라고 제목을 뽑았다고 한다.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지난 2016년과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견해가 많이 강조됐다고 CP는 전했다.

강연숙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목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말씀과 살 군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생년부/EM 오후 2:00 수요일(토)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를 위한, 이민가정을 위한, 선교를 위한, 영혼을 위한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토)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에델민예배(소매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리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백이 함께 말하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4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교 예배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이드) (마지막주) 오후 8: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토)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세계복음연맹(WEA) 토마스 슈마허 신임 사무총장 취임



세계복음연맹 새 사무총장 토마스 슈마허 박사 ©Martin Warnecke

세계복음연맹 리더십 이양식(WEA Leadership Handover Ceremony)이 27일 오후 1시(독일 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개최, 신임 사무총장 토마스 슈마허(Thomas Schirmacher) 박사가 공식 취임했다.

온라인으로도 병행된 이번 행사에서 토마스 슈마허 사무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종교 자유의 가치에 대해 역설하는 한편, 복음이라는 공통의 기독교 DNA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들의 연대를 희망했다. 슈마허 사무총장은 "1647년 영국에서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믿으며, 그는 성경의 저자이시며,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신다고 믿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DNA이고 복음주의"라고 고백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관련, "1846년 세계 복음동맹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최초의 대규모 종교 단체였다. 그것은 신앙을 억압하는 어떠한 국가와 체제에도 대항하여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했다"면서 "종교의 자유는 정치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DNA이다. 우리는 이것을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복음주의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회의 실재는 선교이며 그것은 모든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

해 증언할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라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강조했다.

또 슈마허 사무총장은 세계교회들의 연대와 관련,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할 때 성공회, 오순절 교단, 개혁신교, 구세군 등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그룹을 하나로 모으고 싶다면, 기독교의 DNA를 중심으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려는 우리 운동 밖의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우리의 비전을 많은 다른 교회들로 확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WEA에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이지만, 수백만 명의 기도와 가까운 동료들의 격려가 있을 때 가능할 줄 믿는다"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에프라임 텐데로(Efraim Tendero) 직전 사무총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일은 자에게 전 세계의 고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를 열어주었고, 그들과 함께 성경적 원칙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했다"면서 "또한 우리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기술과 분별력을 갖춘 뛰어난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유진 기자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 오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EM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한아침년부 주일 오후 1:00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벨리제움 MP제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전 11시 (금요일주중예배: 오후 7:30)
 1584 Hensel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5-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중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s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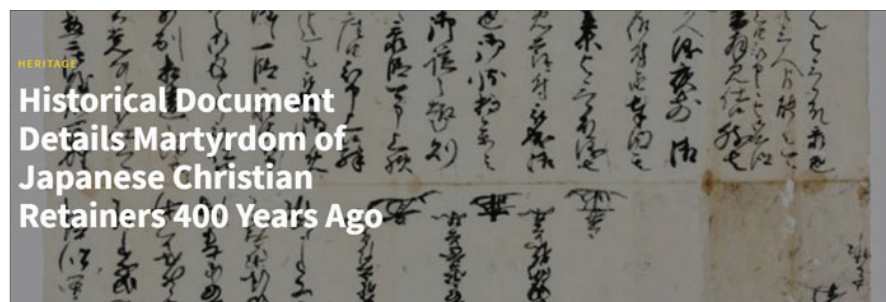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일본서 400년 전 기독교인 탄압 문서 발견



일본에서 400여 년 전 가가야마 하야토의 순교와 오가사와라 겐야의 처벌을 지시한 호소카와 가문의 1차 사료가 최근 발견됐다. ©헤리티지데일리 보도 캡처

일본에서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기독교인을 탄압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 고고학 매체인 '헤리티지데일리'는 1600년부터 1620년까지 고쿠라(Kokura) 영토의 영주였던 호소카와 타다오키가 내린 두 가지 결정에 대해 주목했다. 다다오키는 당시 호소카와(Hosokawa) 가문의 수장이자 기독교인인 '가가야마 하야토 디에고'에 대해 처형을 지시했으며, 기독교 신자였던 '오가사와라 겐야'의 추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두 기독교인의 순교와 형벌은 예수회(Jesuit) 선교사들이 로마로 보낸 보고서 통해서는만 알려졌다. 그러나 호소카와 가문에서 만든 주요 역사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당시 선교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게 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16세기 중반 예수회 선교사 프란치스코 사비에르(Francis Xavier)가 일본에 도착한 후, 일본 내 기독교 신자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지역 및 봉건 영주들과 신하들이 기독교를 받아 들였으며, 특히 규슈 지방과 지역 영주인 호소카와 가문에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다.

1614년 12월 에도 막부(Edo shogunate)가 전국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했고 호소카와 가문의 다수가 신앙을 포기했지만, 가신들 중에 두 사람은 배교를 거부했다.

가가야마 하야토는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세 명의 영주를 섬긴 무장이었

고, 오가사와라 겐야는 그의 사위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주인 타다오키는 두 사람에게 종교를 바꿀 것을 명령했으나 둘은 끝까지 불복했다.

예수회 선교사가 로마로 보낸 서한에는 1619년 9월 8일 타다오키는 마침내 하여토에게 참수 명령을 내렸으며, 겐야와 그의 가족은 범법자들이 사는 외딴 시골 마을로 추방시켰다. 그러나 겐야와 가족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635년 12월에 구마모토에서 모두 처형됐다.

구마모토 대학의 에이세이 분코 연구소(Eisei Bunko Research)는 호소카와 가문의 첫 번째 가신인 '마쓰이 가족문서' 기록을 분석하던 중에 이 명령이 담긴 서한을 발견했다. 연구에서 발신자는 로쿠자메논 야노 외 3명으로 추방당한 겐야를 관리한 공무원이었고, 수신인은 호소카와 가문의 초대 영주이자 고쿠라 지역 최고 행정관인 오키나카 마츠지로 밝혀졌다.

이나바 츠구요(Tsuguyo Inaba) 교수는 이 역사 문서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에서 온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만 가가야마 하야토의 순교와 오가사와라 겐야의 처벌을 알 수 있었을 뿐 정보는 여전히 불확실했다"며 "그러나 호소카와 가문이 작성한 1차 사료가 발견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츠구요 교수는 이 문서가 일본의 지배 계층 구조에서 기독교인이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일본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적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이미경 기자

손봉호 교수 “코로나 지나며 한국 개신교 약점 모두 드러나”



손봉호 박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겸 고신대 석좌교수가 23일 보도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개신교계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모두 드러났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손 교수는 일부 교회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 “예배를 하는 근본적 목적은 없고 형식만 주장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에게 예배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즉, 전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대면)예배를 하는 것은 본질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손 교수는 “형식이 본질보다 강조되는 것은 전형적인 종교의 타락 과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이번이 개신교계가 정화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손 교수는 그가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홈페이지에 지난해 8월 쓴 글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대면예배만 예배란 주장은 성경적 근거도 없고 그런 전통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대면예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희생된다면,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살인죄를 짓는 잘못된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정성만 있으면 비대면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다.

손 교수는 ““만약 ‘억울하다’, ‘종교 탄압이다’하면서 뭉니를 부리고 대면예배를 고집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생기면, 한국교회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 것이고, 전도의 문은 막힐 것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끝나고 말 것”이라고도 했다.

김진영 기자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직접 만든 찬양 50여곡 발표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찬양하는 치유부흥사’ 이순희 목사(부천 백송교회)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곡을 만들어 코로나에 지친 영육 치유에 나섰다.

이 목사는 최근 ‘빛을 발하라’ 등 창작 찬양곡 50여 곡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여 주 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내용이다.

작곡을 배우거나 곡을 만들어본 적 없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만든 후 거의 하루에 한 곡 이상을 쏟아냈다.

이순희 목사는 교회에서 지난해 코로나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을 당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한 바 있다. 이 목사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찬양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새 찬양곡을 만들었다.

이 목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도 지쳐 있고 교회도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을 심어주기 위해 찬양을 만들게 되었다”며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덕분에 기적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인 이순희 목사의 순수 창작곡은 ‘빛의 옷을 입으라’, ‘빛으로 사랑으로’, ‘주의 빛’ 등 빛을 주제로 한 곡이 많다. 위기의 때일수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취지다.

또 복음을 선포하는 밝고 경쾌한 곡에서부터 서정적 은혜의 찬양, 단조 형식의 간증 찬양 등 다양한 곡들을 만들었다.

이순희 목사는 거의 성경말씀으로 가사

를 만들었다. 비유나 은유보다, 복음에 대한 선명한 가사와 선포도 눈길을 끈다.

복음성이 작곡가 겸 가수 전용대 목사는 “최근 복음성이 가사가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목사님의 찬양은 말씀 중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목사가 걸어온 삶을 담은 간증 찬양은 감성적인 분위기가 번져 깊이를 더해준다. 무엇보다 곡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예배와 집회를 통해 교인들과 나누고 있다. 풍부한 성량으로 직접 부르는 찬양은 집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다.

이순희 목사는 자신이 만든 곡을 직접 불러 음반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 목사의 찬양을 들은 복음가수 등 주변에서 음반 제작을 권유하고, 제작비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음반은 3월 20일경 출시될 예정이다.

이 목사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를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면 그 노래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 성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실천을 생각할 수 있다”며 “말씀과 찬양을 통한 치유와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복음가수로 사역하고 있는 이순희 목사는 2000년 미국 애틀랜타 연합집회와 2001년 국정방송 출연을 계기로 치유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목사는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년 부천 백송교회를 개척한 후 대구와 미국 등 국내외 지성전, 충남 보령에 백송수양관을 세웠다.

이대웅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빛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주일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성림회 오후 8:00, 종교개혁, 대학원생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배려공평케 하니 그 열매는 복음의 열매가 되리라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종교개혁),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제례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종교개혁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성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개혁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종교개혁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말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종교개혁 오전 9:15, 11:30, 찬양예배 오후 7: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생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를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제 생애 가장 소중한 것들

오늘은 홀로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입원해 계시면, 자주 심방왔던 병원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일 년 동안 많이 긴장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안식하는 시간을 병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지내 왔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큰 기쁨과 보람이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중에도 성도님들의 헌신이 눈물겨웠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헌신과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한 주 한 주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습니다. 많은 변화에도 성도님들께서 잘 적응해 주셨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온라인 예배와 줌으로 드리는 수요심야기도회 등 다양한 모임에 탁월하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성도님들의 저력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홀로 조용히 하루를 지내면서 제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 생애에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 14:6). 저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영광스런 교회를 만났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둘째, 제 생애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때 영의 아버지처럼 모셨던 고 이병돈 목사님께서 공황에서 제게 남겨 주신 말씀이 오래 기억됩니다. “가장 마지막 남은 것은 사모입니다.” 제 아내를 잘 돌보라는 권면의 말씀이셨습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하면 서도 가장 많은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사랑을 가꾸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존중과 섬김으로 세워 집니다. 눈물 어린 기도로 세워 집니다. 보배 같은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

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게는 육신의 가족 이상으로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난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 생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명입니다. 소명이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이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각자가 다릅니다. 사명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요 17:4).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사명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도 환자들을 섬기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 그리고 약사님들을 만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과 청소하시는 분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직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제게 주어진 사명은 목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 일념으로 살아 왔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목회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글을 아껴 읽어 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을 선출 합시다

저는 두 종류의 독서회에 참여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과의 독서회입니다. 매달 그달의 책을 읽고 한 분이 총현뉴스에 독후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교역자 회의에서 그 독후감을 읽고 난 후, 교역자들이 자신의 느낌을 나눕니다.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내기 힘들지라도, 한 달에 한 권의 책은 읽어서 섬김을 위한 소양을 쌓으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른 하나의 독서회는 교회 밖에서 만나는 “기독교 사회사상 독회”입니다. 이를 지속한 것이 10여년이 되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으면 의무감도 없고 또 책임감도 없으니, 수명이 모여 한 달에 한 권씩 좀 딱딱한 책이나 고전에 속하는 대작을 읽어왔습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비롯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책, 막스 베버와 라인홀드 니버, 마이클 샌델과 월터스토프, 폴 리코와 자크 엘룰 등 기독교와 사회사상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읽었던 책은 우리나라의 자랑,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12권의 책으로 된 목민심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지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부임하여 퇴임에 이르기까지 일하는가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선비들이 어떤 생각으로 나라와 지방을 돌아보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어떠한 서양의 고전에도 뒤지지 않는 놀라운 체제와 지식과 상세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전라도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가능했는지 기적이 가까울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을 돕던 강진 사람들과 모여든 제자들을 생각하니, 17년 동안의 유배생활이 고전을 생산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달래의 교회사는 그가 죽기 전 남양주에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어머니 안에 머물다 가신 믿음의 교역자와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위대한 저술과 고전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주시는 선배들이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유학 중인 저를 직접 지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친히 도전하여 주신 총현의 원로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있을 때에도 한국을 방문하셔서 함께 남양주 다산의 무덤을 찾아갔던 안동철 장로님 부부와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학교로 찾아주셔서 목회의 소망과 격려를 주신 이성우 장로님과 추억은 다른 성도들과의 수많은 기억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가진 어머니 역할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제 또 복음과 사랑의 답지자로서 일꾼을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 퇴임하시는 장로님을 대신할 3명의 장로님, 교회의 중추적 일꾼 안수집사님과 기도의 여종인 권사님을 뽑으려 합니다. 막중한 미래의 사명과 역할을 위하여 이번에도 새로운 교회의 종들이 선발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책과 사상은 기독교의 자산이지만, 봉사자들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자산(heritage)입니다.

■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영성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박광철 목사

니지만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

Study(연구한다) (행 17:11) -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서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직접 펴서 공부했다. 성경의 배경, 필자에 관한 것, 신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주제와 핵심 내용 연구,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인물들에 관한 공부, 사건별 연구, 중요 주제에 관한 연구 등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영성개발에 지름길이 된다. 공책을 펴 놓고 내가 읽는 성경 부분에 관하여 여러 모로 연구하는 것이다.

초기 방법 중의 하나는 읽는 책의 한 장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 제 1 장의 제목은 “족보장,” 또는 “예수 탄생장,” 제 2 장의 제목은 “동방박사장,” 제 3 장은 “세례 요한장”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다. 미리 정해진 자료를 그대로 쓰기 보다 자신이 직접 읽고 자기 나름대로의 제목을 정하면 좋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두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유익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지도와 성경사전 등이 필요할 것이다.

Hear(듣는다) (롬 10:17) -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성경책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

에 성전에서는 서기관이 성경을 읽고 청중이 듣는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얼마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롬 10:17). 더 잘 듣기를 원하면 조용한 환경과 조용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들으면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마음도 필요하다.

Apply(적용한다) (수 1:8) - 성경은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아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마치 값이 비싸고 성능이 탁월한 컴퓨터를 구입했지만 그것을 방한 구석에 방치해 두는 것과도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헌금에 관한 메시지를 듣거나 읽었을 때에는 실제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읽고 깨달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라.

Read(읽는다) (계 1:3, 사 34:16) -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창

세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의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이다. 읽을 때에 그 책의 전체적인 주제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 책을 다 읽는 것이 좋다. 아주 빠르게 읽는 속독의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식은 읽은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내용 중에 어려운 용어나 내용이 있으면 처음에는 일단 지나가되 다음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기도 하고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는 것도 좋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읽으면서 깨닫는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다. 혹시 가능하면 영어나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Keep in mind(암송한다) (시 119:11) - 우리는 매일 듣고 보고 읽는 것이 많아서 특별히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좋다. 성경을 암송하는 비결은 “반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기억하는 능력이 있지만 또한 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결코 오래 남지 못한다. 성경을 암송하면 유익이 많다. 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때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전도할 기회가 생겼을 때에 성경책을 펴지 않아도 암

송한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한다.

어느 미군 군목은 한국 전쟁 중에 겪은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 겨울 밤에 대구 지역에서 낙하산으로 낙하할 때에 사고가 생겨서 낙하산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맨몸으로 얼음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가 암송한 말씀 중에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 91:11절 말씀이 기억났다고 한다. 그래서 “주님, 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그가 떨어진 곳은 겨울철에 높이 쌓아올린 난가리 위였다고 한다. 차가운 눈바다야 아니라 폭신한 볏짚 위에 떨어져서 그는 살았다. 그래서 간증책을 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Share(나눈다) (딤후 3:14) -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느 새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며 나눔으로써 마음에 더 오래 남는다.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이웃과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 못 이해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또 이웃으로부터 더 깊은 내용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목회자료
 마그네틱 메모
 목회일기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감사하게 하는 섭리

고린도후서 9:6-10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흔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표현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꾸어 설명하면 믿기 이전의 생활은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짜증만 내던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을 얻은 다음부터의 생활이 이상하게도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하고도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마음속 깊은 곳, 신앙인적 바탕에서 우러나온 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 본질을 어디에 근거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조건에 육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 허무맹랑한 조건들이 화려한듯 계획은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실패로 기울어져감에 따라서 얼굴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입술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쉬던 탄식이 터져나오며 참으로 괴로운 인생이라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소망을 위하여 하늘 방법과 하늘의 신령한 방법으로 나를 맡아서 인도해 가시고 교육, 훈련시키시고 가르시고 다듬으시는 과정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에서 당하게 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경우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유익을 목적으로 엮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나 나를 더 크게 쓰실 목적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더 큰 감사의 표현이 터져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에 대한 가치와 기대는 순전히 애굽인들과 바로왕을 위한 노동력의 착취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자신들의 신체가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고 해방되는 길이며 구원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애굽 고센땅에 바로의 채찍과 고통속에 이스라엘은 하나, 둘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시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까지 오는 동안 사흘이 걸렸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그곳을 건널 걱정 속에 뒤쫓아오는 애굽군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

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도 그들의 신앙이 혼란되고 길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의 애굽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출14:11-12)"며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4-15)"라고 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은 나왔으나 애굽에 대한 육신적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뜻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후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후였기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꿀 섞은 떡가루,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되어있었고, 혹여 다음을 위해 많이 거두어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출16:20).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우리에게 있어 크고 작은 모든 입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지적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가마니가 그득한 곳간에서 내어놓는 밥상은 그만큼 감사함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

번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 속에 얻어진 밥 한끼는 눈물이 날정도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밥 한끼를 먹어주신다는 감사보다도 나 같은 것을 알뜰히 관심가운데 염려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할줄 믿습니다. 세상적 부요함에 편승하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멀어져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본문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거름을 주고 그 땅을 밟고 씨를 뿌려 수확을 기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많이 심어 거두어지는 결실을 놀라운 성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역사를 믿을 수 있다면 값진 것을 심어 값진 은혜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해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불신앙의 인식함,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눈치를 보며 봉사나 헌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런 성과도 상급도 없이 손해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본문이 증거하는대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업에 활용해 달라고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목적에 합당한 관리를 못하고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을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선교의 사명으로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꾸시는 은혜로 엄청난 결실의 열매로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편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염,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염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핏줄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9)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영화 <소울>의 영혼

<소울>, 영지주의 이단의 영혼선재설 그대로 채택
몸과 영혼 이원론적 구분, 현실 윤리 도외시할 위험
본회퍼 창세기 해석, 인간은 존재의 기원 알지 못해
오로지 하나님만 창조 섭리와 존재 원리 모두 파악

◆신학과 영혼: 애니메이션 <소울> 이 채택한 영혼선재설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주변에서 영화관을 방문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기대작들은 줄줄이 개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그 틈새를 노린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간 일별 박스오피스 1위에 디즈니-픽사의 <소울>, 2위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3위에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이 올라 있다.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상위권을 모조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디즈니-픽사의 <소울>은 인간의 영혼과 존재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서사 면에서 관객들에게 상당히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적 인간 이해 관점으로 볼 때 서사보다 더 관심이 가는 바는, 이 작품이 선보이는 인간의 영혼과 탄생 원리에 대한 설정이다.

애초 디즈니 작품인 까닭에 기독교적 영혼론을 반영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사뭇 놀란 점은 <소울>이 기독교 역사상 술하게 등장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수용해 발전시킨 플라톤주의 영혼선재설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울>의 시나리오 작가가 영혼선재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서사를 풀어나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이다. 영혼선재설이란 영혼들이 모여 있는 세계가 따로 있어, 이 땅에 인간이 새로 태어날 때마다 그 영혼들이 태아 혹은 신생아의 몸에 깃든다는 믿음을 통칭한다.

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영혼이 앞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가르침은 플라톤의 환생 이론을 해명하기에 적합하다.

죽은 이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다가 물질세계의 유희에 끌려 새로운 몸으로 환생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었으니, 환생 이론과 영혼선재설은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하는 영혼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영혼유전설을 정설로 지지해 왔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유전설이 스토아 유물론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데 주저함을 보였지만, 이후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영혼유전설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데다 플라톤주의 환생 이론이나 영혼선재설을 반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영혼유전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정했다.

영혼선재설은 고대에는 기독교 내부에서 자생한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로 지지했고, 오늘날에는 통상 물몬교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신흥종교 사이언톨로지에서도 확고히 믿고 있다.

사이언톨로지 같은 경우 애초 플



최근 극장가에 개봉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소울>.

라톤주의 환생 이론과 유사하게 외계인에 의한 영혼 환생을 가르치는 까닭에, 어떤 의미로는 영혼선재설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사이언톨로지는 그들의 교세 확장을 위해 미국의 연예,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집중 공략했다. 그 덕에 유명 배우, 프로듀서, 감독, 시나리오 작가 중 사이언톨로지 신도들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출연하거나 제작한 영화나 TV 시리즈 가운데는 사이언톨로지의 교리를 반영하는 작품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소울> 역시 이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듯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소울>을 관람한 관객들 중에는 이 작품이 사이언톨로지 교리를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한 이도 존재한다.

◆신학과 윤리: 본회퍼의 창조론이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적 인간 이해

그렇다면 디트리히 본회퍼는 인간의 영혼과 존재에 대해 어떤 견해를 선보이고 있는가? 1933년 출간된 <창조와 타락>에서, 본회퍼는 특유의 실존론적 인간 이해에 입각한 기독교 창조론의 새로운 해석법을 선보인다.

여기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갈등은 전혀 논제가 되지 않는다. 본회퍼에게 있어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성립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정해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섭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순종과 죄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본회퍼의 창세기 해석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존재의 기원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유희성을 지니고 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신 섭리, 그리고 그 존재 원리를 모두 파악하고 계신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존재를 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에 몰두하기보다, 스스로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데 삶을 바쳐야 한다.

물론 이 계시와 계명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실존적 현실 안에서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성과 세계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

타인과 맞부딪치며 그들을 존중하고 자기중심적 인식 욕망과 지배 욕망을 포기하도록 하시는 것,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을 통해 주어지는 계시의 핵심이라는 것이 본회퍼의 주장이다.

본회퍼는 무엇을 알아내고, 그 알아낸 지식으로 삶의 대상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작하려 하는 인간의 욕망이 끝내 선악과 계명을 범하는 원죄로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든, 인간에 대해서든, 아니면 세계에 대해서든 자기 지식을 채워 만족하는 일에 집착하기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타자와의 열린 관계에 헌신하는 순종에 힘쓸 것을 권고한다.

본회퍼는 인간을 바라봄에 있어 자신의 시대 독일 철학계 및 신학계를 주도하던 실존론적 입장을 따랐다. 실존론적 관점에서는 한 인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현상적 지평 외에 달리 인간이 알거나 논할 수 있는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세 즉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에 대해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론적인 인간 이해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그 속에서 경험하는 체험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타자와의 관계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을 이루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이루는 존재자들과의 관계가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고 그 존재 의미를 부여한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는 내세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사르트르나 카뮈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그들의 철학 체계를 내세에 대한 믿음을 전면 부정하는 데 활용했다.

본회퍼 역시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론적 인간 이해에 입각해서 성경의 창조 기사를 해석한 이유는, 내세에 대한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 즉 삶의 현실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신앙의 양심과 타자윤리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이는 1933년 당시 나치의 정권 장악에 동조하고 환호하던 독일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와 자성의 목소리를 내려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영화 <소울>에 대한 감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 작품이 채택하고 있는 영혼선재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기독교의 전통 교인 영혼유전설에 어긋나기 때문만이 아니다.

영혼선재설처럼 몸과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사고가 자칫 인간 실존 가운데 맺어지는 현실의 관계, 현실의 윤리를 도외시하고, 자기 존재를 마음대로 누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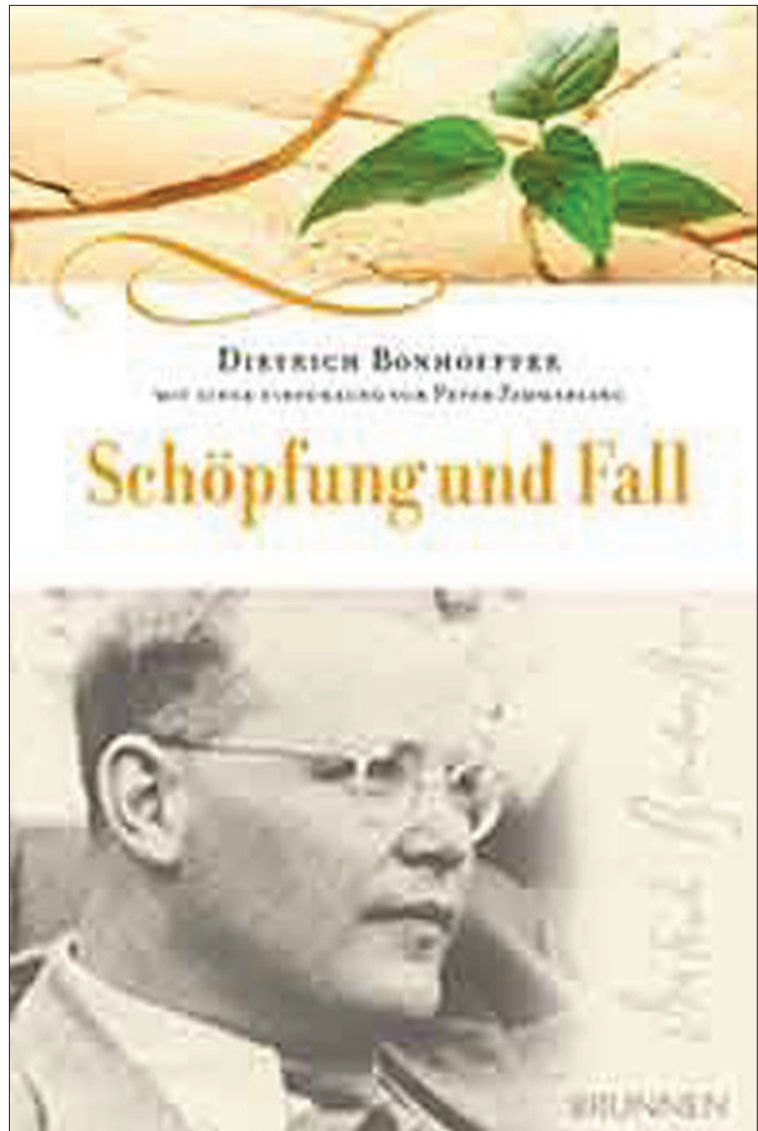
‘나’라는 존재가 우리 삶과 무관하게 이미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곧 자아의 존재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초월해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믿음은 곧 자아가 자기 삶에 관여된 모든 것에 대해 독존적 주체라는 확신을 낳기 때문이다.

이는 타자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모든 비윤리적 사고의 대전제가 된다. 나치가 아리아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존재 가치가 없는 열등한 민족으로 간주한 데는, 자신들만이 초월적이고 우월한 존재라는 존재적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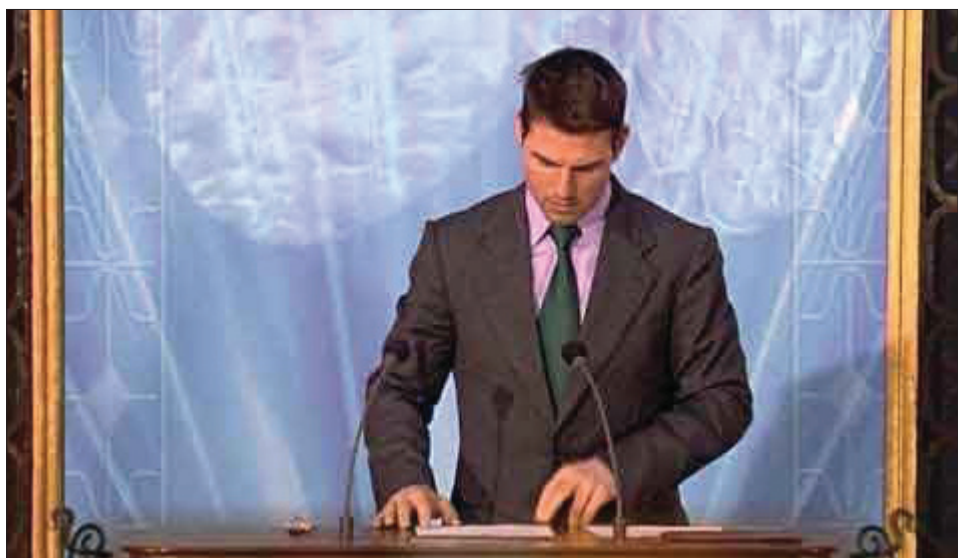
본회퍼의 실존론적 인간 이해는 영혼에 대한 이론들을 자의적으로, 선부르게 정립하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처사를 비판하는 가운데, 타자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와 사랑의 실천을 신앙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는 지혜를 선사하고 있다.

이는 <소울>과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에 엿보이는 각종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인간 이해 방식의 맹점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본회퍼의 창조론을 담은 신학서, <창조와 타락>.



사이언톨로지의 집회에서 강단을 맡은 영화배우 톰 크루즈. 미국의 연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사이언톨로지 신도들이 여럿 존재한다. ©유튜브



애니메이션 <소울>에 반영된 영혼선재설은 자기 존재를 중심으로 타자와 세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배하려는 비윤리적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공동체의 리더

예수님 말씀과 행동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견하라



군서치요
사오상젠 | 김성동 · 조경희 역
싱글 | 536쪽

리더에게 필요한
인문정신은
이 책 한 권에 있다
당태종의 명으로
당대 최고의
신하들이 편찬한
통치술의 정수!

중요한 역사문헌인 『군서치요』는 중국의 전통적 국정운영 사상을 계승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통치에 대한 갖가지 유익한 경험을 참고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어떻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바가 크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리더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곧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리더(leader)라는 단어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리(lea)'와 '더(der)'가 합쳐진 단어이다. 여기서 '리(lea)'는 '길(pat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der)'는 '발견하는 사람(find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 리더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pathfinder)'이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곧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리더가 길을 발견 하지 못하면 팔로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가 없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은 평소 '형편없는 직원은 없고, 단지 형편없는 리더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CEO는 두 가지 상황에서만 존재한다. 첫째는 결정할 때이며 둘째는 실패했을 때이다. 실패했을 때에는 CEO인 당신이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실패했을 때 사원들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거나,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성공했을 때에는 '우리의 성공이다'라고 해야 한다."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군서치요』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 해주는 책이다.

『군서치요』는 당 태종 이세민이 정관(貞觀) 초년에 영을 내려 편찬하도록 한 책이다. 이 책에는 역대 제왕의 치국과 정부에 관련된 사료를 정리하고, 경서·사서·제자백가서 가운데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관련된 정수만을 뽑내어 집대성했다.

위로는 오제(五帝)에서 시작하여 아래로는 진대(晉代)에 이르기까지 1만 4천여부, 8만9천여 권의 고적 중에서 도합 50여 만 자를 두루 모았다.

위징 등이 당태종을 위해 편찬한 『군서치요』는 정부를 보좌하기 위한 대작으로, 대당성세(大唐

盛世)를 여는데 이론적 지침의 역할을 했다.

치국의 강령으로, 거기에 수록된 내용도 정관 시기 군신의 심원한 지혜가 담긴 치국이념을 깊이 구현하고 있으며, 성왕의 치국 경험이 총결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 태종은 『군서치요』를 읽은 뒤, 위징이 올린 『군서치요』에 답하는 친필포서에 감개하는 글을 남겼다.

"짐은 어려서 무를 숭상하고 학업에 정진하지 않아, 선왕의 도는 아득하기가 바다를 건너는 듯했다. 편찬된 이 책을 읽으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니, 짐이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정치를 펴는 데 옛일을 고찰하여 유익한 적용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정무를 처리하면서 의혹이 없어졌으니, 그 수고로움이 참으로 크지 아니한가!"

태종은 특히 명을 내려 『군서치요』 10여 질을 베껴 쓰도록 했고, 태자와 제후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치의 귀감으로 삼도록 했다.

일본 에도 시대 중기 유학자인 하야시 긴보는 『군서치요』 텐 메이본의 교정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왕조가 조와·조간 연간에 태평하고 안락한 성세를 이룬 것은 이 책의 힘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일본 조와·조간 연간(834-876)에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이룬 성세 국면이 열린 것은 『군서치요』의 힘을 빌린 성취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군서치요』의 원전은 공교롭게도 중국 대륙에서 오랜 기간 사라졌다가 이웃 일본에 전해진 책이 발견되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우여곡절을 거친 뒤, 최근 중국의 정계 및 재계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리고 본 책은 중국의 고전 연구자 사오상젠이 풀어엮은 『군서치요심득』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군서치요』 원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일반인이 방대한 내용의 원전을 읽고 공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편역자 사오상젠은 원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알기 쉽게 풀이했다.

이 책에 담긴 사상은 현대의 눈으로 볼 때, 리더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 기업가는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개인은 어떻게 자

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 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군서치요』의 사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서치요』의 천도(天道) 사상: 천도를 본받고 천일합일을 이룬다.
2. 『군서치요』의 덕치(德治) 사상: 수신을 근본으로 삼고 덕으로 정치를 한다.
3. 『군서치요』의 인의(仁義) 사상: 어진 이는 남을 사랑하고 의로운 이는 도리를 따른다.
4. 『군서치요』의 예치(禮治) 사상: 군주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방법으로 예만 큼 좋은 것이 없다.
5. 『군서치요』의 악치(樂治) 사상: 낯은 풍속을 고치는 방법으로 악(樂)보다 좋은 것이 없다.
6. 『군서치요』의 교육사상: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의 군주가 됨에 교육과 학문을 우선으로 삼는다.
7. 『군서치요』의 용인(用人) 사상: 현명하고 유능한 이를 임용하며 사악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 한다.
8. 『군서치요』의 치정(治政) 사상: 덕치를 위주로 하며 법치로 보조한다.
9. 『군서치요』의 민본(民本) 사상: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민생을 중시한다.
10. 『군서치요』의 경제사상: 근본을 중시하고 말단을 경시하며 사치를 버리고 검약을 받는다.
11. 『군서치요』의 군사외교사상: 전쟁을 멈추고 문교에 힘써 덕으로 변방의 백성을 보듬는다.
12. 『군서치요』의 남간(納諫) 사상: 겸허하게 간언을 받아들이고 충언으로 직간한다.
13. 『군서치요』의 이치(吏治) 사상: 공적에 따라 관리를 심사하며 온 정성을 모아 정치에 힘쓴다.
14. 『군서치요』의 재난대처사상: 정부를 근면하게 수행하며 덕으로 지혜를 없앤다.
15. 『군서치요』의 인과(因果)

사상: 선을 숭상하면 창성하고 악을 좇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16. 『군서치요』의 우환(憂患) 사상: 평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고 처음처럼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세상에는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리더가 안 되고 싶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던 원치 않은 누구나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이 어린 사람의 리더가 된다.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면 자녀의 리더가 된다.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가면 부하 직원의 리더가 된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면 교인들의 리더가 된다.

이렇듯 누구나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자리만 차지하는 리더가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 따르는 자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가 돼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하는 리더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견하고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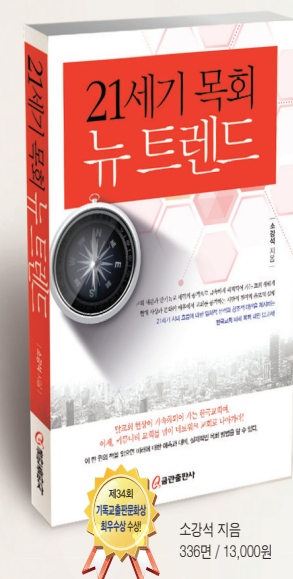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다.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의 사역으로 그들을 섬기셨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섬김까지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리더의 다양한 역할을 갖추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리더가 돼야 한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저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저
380면 / 15,000원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은혜로
빛으로

30년

with Grace into Light



3월 11일(목), 10am

실시간라디오 및 유튜브채널 생방송!
GBC 개국 30주년 감사예배
장소 : 은혜한인교회

4월 22일(목), 9am

나눔On 캠페인 특별 생방송

7월 17일(토), 7pm

팬데믹을 넘어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콘서트
'This is Korea!'
장소 : Walt Disney Concert Hall

5월 3일(월)
~ 9월 30일(목)

5월부터 참가 영상 접수! 9월 시상!
제 10회 GBC 복음성가 경연대회

10월 29일(금)
~ 31일(주일), 7pm

2021 CCM 찬양제

